

# 전주지역 무주택 수요자 관심 집중

### 만성예코르 1단지 청약 1순위 마감... 평균 경쟁률 2.35대 1

전북개발공사는 만성지구에 최초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이 평균 2.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 청약 1순위를 마감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만성지구 만성예코르 1단지 1순위 청약 접수 총 993건으로 평균경쟁률 2.35대 1, 최고경쟁률은 6.46대 1을 기록했으며 전주지역 무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고 밝혔다.

특히, 만성예코르 1단지'는 만성지구 법원·검찰청과 핵심상권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1순위 마감에 기대하는 요소가 많았다.

또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평형은 84B㎡으로 247구 모집에 전주시 거주자 155명이 청약 접수, 6.46대 1을 기록했고 이어 84A㎡ 1.62대 1, 84C㎡ 1.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아울러, 전남 진행된 특별공급 모집에도 총 284건이 접수됐으며 최고 경

쟁률 1.5대 1로 84B㎡은 청약이 초과되는 등 이 아파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전개공 관계자는 "상반기 공급한 관계·임실 농어촌 임대주택 등 공사에서 공급한 모든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단기간에 100% 완판 기록을 했고 미분양 가구 수가 없다"며, "도민들에게 새로운 주거가치를 창출하고 입주예정자들의 높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고 품질의 아파트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 21일에서 23일까지 진행된 혁신도시 이전기관종사자 특별

공급 모집에도 84B㎡은 청약이 초과되어 한국주택협회 주관으로 추첨을 한 바 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월 13일이며 주택소유·자산·자동차 등 입주자격 소명 절차를 거쳐 계약일은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입주는 올해 9월 예정이다.

한편, 만성예코르 1단지는 전주시 만성동 1637-3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4㎡ 총 832가구를 공급한다. /김영태 기자

## JB금융그룹, 당기순이익 3210억원 시현

JB금융지주(회장 김한)는 2018년도 연결 누적기준 3,210억원(지배지분 2,43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이는, 전년대비 21.4%(지배지분 31.4%) 증가한 실적으로 2018년도 연간 계획인 2,880억원(지배지분 기준 2,089억원)을 초과 달성과 동시에 3년 연속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연간 최대 실적 기록을 경신했다.

그룹 계열사 간 협업 강화를 통한 시너지 확대 효과가 안정적인 실적으로 이어지고 핵심 자회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내실 위주의 안정적 경영을 바탕으로 수익과 비용 지표가 양호하게 유지되면서 영업 경쟁력이 지속 강화되고 있다.

특히, 전북은행(별도기준)은 전년 대비 54.5% 증가한 1,005억원의 연간 실적을 나타내 그룹의 높은 이익 증

가세를 견인했다.

광주은행(별도기준)과 JB우리카페탈 역시 각각 전년 대비 13.5%, 5.0% 증가한 1,533억원과 751억원의 연간 이익을 달성했다.

신자회사인 캄보디아 프놈펜산업은행은 영업력 확대를 통한 현지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 전년 대비 17.0% 증가한 148억원의 연간 이익을 시현했다.

또한, 2018년 4분기 중 광주은행과 의 주식교환 완료로 2019년부터는 광주은행의 이익이 그룹 실적(지배지분

기준)에 본격 반영되면서 2019년에도 그룹의 양호한 이익 모멘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주요 경영지표 부문에서 수익성 지표인 ROE(지배지분), ROA(그룹 연결)는 9.1%와 0.68%를 기록했고 자산건전성 지표는 경기 불확실성 우려에 대비한 적극적인 리스크관리 정책 추진으로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전년 대비 0.04%p 개선된 0.92%, 연체율은 전년 대비 0.05%p 개선된 0.82%를 기록,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상공회의소 - 유관기관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전개

전주상공회의소는 설을 맞아 30일 신중양시장 일원에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단, 의원, 전주상의 임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이용촉진 캠페인'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마다 지역 상공인, 유관기관과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전주상의

는 '제수용품 구입, 선물준비는 전통시장을 이용하자'는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고 전통시장 이용촉진 캠페인 행사에 참여, 장보기 한 물품을 지역 복지지원 단체에 기부하는 등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명절의 큰 의미를 되새겼다. /김영태 기자

##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성료

전북도와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전북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개발원(원장 박재민)에서 전북지역 우수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활성화를 위해 설 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했다.

전국에서 입교한 900여명의 사무관 승진자를 대상으로 열린 직거래장터

는 전북도 6차인증업체, 마을기업, 농협 등 40개 농가·업체가 참여, 160여개 품목을 시중가격대비 10~30% 할인 판매했다.

이서면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개발원 직거래장터는 공무원 연수생을 대상으로 명절때마다 운영하고 도내 농업인이 어느 장터보다 더 적극 참여해 우수 직거래장터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한다. /김영태 기자

## 전주원에농협, 정기총회 가져... 역대 최고 당기순이익 달성

전주원에농협(조합장 김우철)은 30일 송천동 소재 전주원에농협농산물공판장 2층 전주원에농협 회의실에서 제 54기 정기총회를 했다고 밝혔다.

전주원에농협은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농협 임직원 및 조합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전주원협 역대 최초 23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며, "2018년은 상호금융대상 수상, 지도사업 선도농협상 수상, 수출 3백만불 달성탑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나타낸 한 해였다"고 전했다.

또한, 전주원에농협의 2018년 결산내역 내용은 예수금 3,600여억원, 대출금 3,200여억원, 경제사업실적 818여억원을 달성했고 자본금 307여억원,

자산총계 4136여억원으로 전국에서 재무구조가 견실한 농협으로 발돋움했다. 아울러, 당기순이익 23억7,000만원 달성, 출자배당 5억8,700백만원, 이 용고배당 8억3,600백만원, 사업준비금 5억7,400백만원을 배당하고 적립했다.

전주원에농협은 2018년 조합원들에게 환원사업으로 9억6,700백만원의 영농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했으며 2019년에는 당기순이익 20여억원 이상 달성에 따른 특별환원사업을 하여 조합원 전원에게 20여만원 상당의 영농자재교환권을 지급했다.

한편, 김우철 전주원에농협 조합장은 "조합원들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주원에농협이 30일 송천동 소재 전주원에농협농산물공판장 2층 전주원에농협 회의실에서 제 54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 전통시장 활성화 기류 조성

### 전북중기청, 민·관 합동 대규모 캠페인 펼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이하 전북지방중기청)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전통시장, 인파밀집구역에서 민·관 합동 대규모 캠페인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캠페인 행사는 전통시장 활력 증진 캠페인 주제로 8회째 맞아 전북지방중기청, 전북지방조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광주 호남지역본부 지역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전주, 군산) 등 전북중소기업지원협의 회(16개 단체), 전북기계공고, 지방자치단체(6개시), 시장상인회 등 33개 기관·단체 150여명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캠페인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확산기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정부, 지자체, 민간 협·단체가 함께 정책을 홍보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선도했다.

아울러, 동절기 추위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각 지역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에서 이용객들과 인근 시민들에게 온누리상품권

홍보리플릿, 장바구니 등을 나눠 주며 전통시장 방문을 독려했다.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 이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판매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낮춘 '제로페이(zero pay)' 지원 사업의 안내·홍보 또한 병행했다.

김광재 전북지방중기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은 설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전통시장 방문, 장보기 독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한 제로페이 지원정책을 알리기 위해 현장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황금돼지 해를 맞아 도내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새로운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장보기 체험 등 전통시장 활력 찾기에 적극 앞장섰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업환경개선팀 이세종(063-210-6432)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지난 29일 지역본부에서 관내 지점장·여신팀장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외환파생상품 확대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 전북농협, 외환파생상품 교육으로 고객 실익 도모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지난 29일 지역본부에서 관내 지점장·여신팀장 등 약 5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외환파생상품 확대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외환파생상품 감당하는 외환전문가를 초청하여 미국 금리인상·미중 무역분쟁·신용국 금융불안 등으로 국내외 이슈 부각으로 환율 금리 변동 시기에 시의적절한 유익한 정보제공 등을 교육 받았다.

또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외환 파생상품 활성화 방안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한편, 김장근 본부장은 "세계적 경기 불안으로 중소기업의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 농협은행은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도와 금융비용 절감 등 투자이익 확대에 기업고객의 실익을 극대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